

CNU 규정 나침반

질문하면 근거 조문과 출처를 바로 확인하는 규정 안내 시스템

386 개 규정

교내 규정 · 지침 현행본
(출품 105개 → 이후 확장)

6,102 조문

조문 단위 검색 · 인용

시점 조회

그 업무 당시의 규정으로
(개정 계열 · 유효기간)

문제는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, 업무 중 찾기 어렵다는 것

- ① **규정집 링크 719건 전수 실측**
출품 당시 현행 규정 105개 · 조문 1,687개 수집 — 이후 규정 정보 사이트를 찾아 386개 · 6,102조문으로 확장
- ② **조문 확인은 개별 HWP 열람 방식**
업무 중 여러 한글 파일을 열어 눈으로 찾아야 함
- ③ **같은 과정이 부서마다, 사람마다 되풀이**
규정을 찾고 당시 조문을 확인하는 반복

저희는 이것 물어보면 조문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.

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쉽게 찾고, 정확한 조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

“업무 특화 AI 전문가 구축, 입시 챗봇 및 규정 챗봇 운영”

— 전남대학교 발전계획 2026-2029, 과제 11.2.2 (담당: 정보화본부, p.63)

발전계획의 ‘규정 챗봇 운영’ 과제를 실제 질의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고, 기존 챗봇 개념에 **기준일별 판본 조회 · 근거 조문 강제 · MCP 연결**을 더했습니다.

● ● ● claude.ai — cnu-rule-compass 커넥터 (2026-08-07 실측 응답 재생)

“전임교원 겸직 허가 기준”

겸직 지침 제5조 · 제7조 요약이 아니라 조문 원문 그대로 — 근거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

조문 원문 출처 링크 수집일자

“연구비 지침,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”

2017. 5. 1. 개정 전 판본 지금 규정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하던 당시의 규정으로 답합니다 — 당시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
유효기간 2014.12 ~ 2017.5
당시 조문 원문 당시 출처 URL

실측 응답 그대로 재생 → R = 다시 재생

감사 지적 유형 9종, 업무 전에 확인

“물품 구매 시 확인해야 할 계약 기준은?”

계약·구매 점검 — 물품 구매 및 계약 기준 확인 + 관련 조문 연결

“외부 특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?”

겸직·이해충돌 점검 — 사전 신고·승인 확인 + 행동강령 조문 연결

“이 출장비 정산, 괜찮나?”

여비·출장 점검 — 중복 수령·증빙 확인 + 여비 규정 연결

감사 지적 사례에서 공통 점검 항목만 추출(부서명·개인명·사건 정보 제외). “감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”을 명시 — 업무 처리 전 확인 항목 제공으로 반복 오류 예방을 지원.

규정 서버는 하나. 쓰던 AI 도구에 연결해서 씁니다

- ① **CNU 규정 MCP 서버** — 검색 · 조문 · 기준일 조회 (규정 386 · 조문 6,102)
|
- ② **쓰던 AI 도구가 그대로 조회** — Claude 연결 확인 · MCP 지원 도구(ChatGPT·Copilot 등) 동일 방식
사용자를 한 화면에 묶는 챗봇이 아니라, 각자 쓰던 도구가 공통 규정 서버를 조회
|
- ③ **한 번 갱신하면 모두 최신** — 서버의 규정 데이터를 갱신하면 연결된 도구가 같은 데이터를 조회

공개 규정만 제공하며, 사용자 업무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.

사람이 기준을 정하고, AI가 만들고, 다른 AI가 허점을 찾음

- STEP 1** 기준 설정 (사람) — 발전계획 원문 확인 · 규정집 구조 실측 · 수집 범위와 검증 기준 결정
- STEP 2** 수집·구현 (AI) — 코딩 AI가 수집·검색·점검 기능 초안 구현 · kordoc으로 HWP를 조문 단위 변환
- STEP 3** 표본 대조 (사람) — 수집 결과를 원문과 대조 · 실패 문서 확인 · 실제 질의로 동작 점검
- STEP 4** 허점 탐색 (다른 AI) — 무관 질의 오응답 · 개인정보 처리 등 14건 발견
- STEP 5** 반영 (사람+AI) — 실패 사례를 판정 규칙과 자동 테스트로 반영, 재발 방지

Claude — 설계 판단 · 답변 형식 통제 · 검증

코딩 AI(Codex) — 반복 구현 · 교차 검증

kordoc — 규정 HWP → 조문 텍스트

프롬프트의 한계를 확인한 뒤, 판정 규칙을 코드로 옮김

답변 프롬프트

“전남대 규정 안내 역할. 검색된 공식 조문 안의 사실만 사용, 조문 밖 내용 생성 금지. 근거가 없으면 '해당 규정 미확인'으로만 답변.”
— 출력 형식(조문·출처 순)까지 지정

1차 운영

지시문은 그럴듯했으나 — 교차 검증에서 무관한 질의에도 조문이 나오는 사례가 확인됨
— 프롬프트 지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

2차 코드 이관

관련성 판정을 검색 규칙에 내장하고,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귀 테스트를 추가
— 지시(프롬프트)와 강제(코드 규칙)를 구분, 신뢰성은 검증 가능한 쪽에

자동 점검 — 정상 질의 · 무관 질의 · 과거 시점 · 개인정보 · 출처 검증

데이터가 바뀌어도, 구조는 같습니다

저희가 한 일은 셋뿐입니다 — 반복되는 일을 고르고, AI에게 시키고, 결과를 의심한다

교내 규정을 공개 자료 → 정리 → MCP 연결 → 자연어 질의로 바꿨을 뿐입니다. 다른 데이터도 같은 구조로 붙습니다.

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구 하나가 아니라 — 이 방법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.

여러 HWP 열람을, 한 번의 질의로

지금 바로 — 연결만 하면 사용 · 공개 자료는 비교적 쉬움 · 내부자료·개인정보는 로컬 구성·튜닝·유지보수 검토 필요.

모든 부서가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— 반복 많은 업무 하나를 골라 개선하면 됩니다.

여러분이 만드실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, 이런 한 문장입니다

“나는 학사 담당인데, 규정 나침반으로 학생 문의에 근거 조문까지 붙여서 답하게 해줘.
못 찾으면 답을 만들지 말고 못 찾았다고 해줘.”

공개 규정부터 시범 운영하고, 담당 부서 검증을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규정 갱신·승인 주체는 정보화본부·소관 부서와 협의합니다.